

기호학의 주체 문제에 관한 고찰*

황영삼**

【 차 례 】

- I. 서론
- II. 본론
- III. 결론

국문초록

주체와 객체 간 관계가 기호체계로 들어가면 주체로서의 인간, 객체로서의 외부세계, 그리고 양자 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기호 등 세 기호활동 참여자들의 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된다. 즉 주체-기호-객체의 구도가 형성된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주제이다. 본 연구는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에서 기호학의 ‘체계’ 이론에서 ‘주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이들 사상에 사유의 토양을 제공한 학문으로서의 기호학이 이를 수용하기 위한 목적의 논의이다.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주체성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인간 주체, 기호, 외부세계 간 위상학적 구도를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먼저 기존 기호학 모델에서 주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 기호체계에서 주체-기호-객체의 구도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들을 제시하였으며, 이들 요인들에 따라 네 가지의 구도의 경우를 설정하였다. 연구 후반부에는 이들 네 가지 구도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의 이론과 개념 네 가지를 선정하여 이들 구도에 위치시켜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기호학적 주체 개념을 퍼스 기호학과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생성기호학 원리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열쇠어 : 기호학, 주체와 객체, 기호학의 주체, 위상기호학, 건축기호학, 도시기호학

* 본 연구는 2013년 인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국립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

I. 서론

일상적 사고에서는 ‘주체=인간’, ‘객체=외부세계’라는 등식이 전제로 통용된다. 이 사고에 따르면 주체는 의미작용과 의사소통 등 기호활동 주체로서의 기호해석자, 기호생성자, 기호조작자(변형, 변환 등)로서의 인간일 것이고, 객체는 기호주체의 대상인 사물 또는 현상일 것이다. 그런데 기호학에서는 주체의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이 기호의 매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구도에 변화가 일어난다. 주체와 객체 간 관계가 기호체계로 들어가면 주체로서의 인간, 객체로서의 외부세계, 그리고 양자 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기호 등 세 기호활동 참여자들의 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된다. 즉 주체-기호-객체의 구도가 형성된다. 이 구도는 형식에 관한 학문으로서의 기호학의 메타형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이다.

주체-기호-객체의 참여자들 간 관계의 체계에서 주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다음 광범위한 질문들이 관련된다. 첫째, 주체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왜 필요하고 그 목표는 무엇인가, 둘째, 기호학적 주체는 인간 주체에 국한된 것인가 아니면 사물과 현상까지 포함하는가, 셋째, 기호학적 인간 주체는 사회적 기호와 어떠한 관계에 놓이는가, 넷째, 이러한 질문들을 포괄적으로 볼 경우 기호활동 참여자들의 구도, 즉 주체-기호-외부세계의 구도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질문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각각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는 연구주제들일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네 번째 질문을 다른 세 가지 질문들과의 관련성 하에서 폭넓게 바라보고자 한다.

실버만(Kaja Silverman)은 기호학의 주체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소쉬르, 퍼스, 바르트, 데리다, 벤베니스트의 이론에서 주체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발전 과정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소쉬르의 언어기호학에서는 기표와 기의 간 관계가 임의적(Arbitrary) 관계이고 동기적(Motivated) 관

계가 아니라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면서, 추후에 진행된 주체 문제 연구의 정초를 제공하면서도 철학적, 기호학적 논의 대상이 되었다고 했다.¹⁾ 반면 퍼스의 이론에서는 언어, 사진, 영화에서 기호작용이 일어날 때 기호와 객체 간에 형성되는 도상, 지표, 상징 관계에 대하여 심상(Mental Image), 관습(Convention), 콘텍스트 인식 등 인간 요소가 임의적이지 않고 동기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퍼스 기호학은 소쉬르 기호학에 비해 주체성을 고찰하기에 용이한 틀을 제공한다고 했다.²⁾ 벤베니스트(Emile Benveniste)는 언어, 담론, 주체성 문제들이 분리되어서 논의될 수 없다고 하면서 개별 발화 속에 주체가 다른 단어들과의 계열체적 관계 속에서 주체의 위상이 형성되고 대명사와 동사가 반드시 내포된다고 했다. 벤베니스트의 담론 속의 주체는 소쉬르가 정초를 제공한 관계 체계 속에서 찾은 것이다.³⁾ 실버만의 기호학 주체에 대한 논의는 라캉과 프로이드의 자아와 무의식 이론을 바탕으로 여성적 주체로서의 인간 주체 내부(Interior of Subject)에 대한 고찰에 중점이 주어져 있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사회적 기호에 대한 주체적 역할은 제한적으로 논의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⁴⁾

라르센(Peter Larsen)은 후설(Husserl)의 이론에 기초한 현상학적 기호학과 소쉬르적 전통의 구조주의 기호학을 구분하였는데, 그 후설의 사유를 보면 구조 내에서의 기호의 위상에 관한 위상기하학적 사유가 나타난다. 즉 후설은 현상학적 접근의 중간 과정에서 ‘의도성’, ‘기호’, ‘기반’ 등의 기호학적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주체간 소통이 가능한 것은 기호가 관계의 체계 내에서 위상을 가진 덕분이라고 했고, 또 구조 내 기호와 객체 간 관계는 궁극적으로 주체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후설의 사유

1) Silverman, K., *The Subject of Semiotics*, p.14.

2) *ibid.* p.25.

3) *ibid.* p.45.

4)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호에 대한 주체적 반응으로 알튀세의 호명이론을 논의하였다, *ibid.* p.49.

는 이후 야콥슨, 러시아 형식주의, 데리다, 리쾨르 사유의 초석이 되었다.⁵⁾

기호학적 주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현대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 논쟁 중에 주체 문제가 중요한 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사상들은 기호학의 ‘체계’ 이론에서 ‘주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수정하기 위한 다양한 사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체의 문제는 외부세계에 대한 이해 또는 해석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생성의 문제에까지 관련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호학의 주체 문제에는 현상학,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 등 철학적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후기)구조주의와의 관계의 관점에 한정하여 주체 문제를 다룬다. 이것은 기호학이 이들 현대 사상들의 뿌리로서 이들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호학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재사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곧 이들 사상들이 기호학을 비판함에 있어 뿌리로서의 기호학의 연구영역과 어떤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기호학 이론이 주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사유의 토양을 배태하고 있는지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기호학의 주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와의 관계 설정에 기여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네 번째 문제 즉 주체-기호-외부세계의 구도에 대한 고찰을 통한 기호학의 주체 문제를 다음 관련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즉 기호가 주체 내부와 외부 어디에 위치하는가, 주체와 기호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기호작용(Semiosis) 내에서 주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을 함께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인간-기호-객체가 기호작용 내에서 상호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기호작용에 개입하는가에 대한 위상학적 구도에 관한 질문이다.

5) Lamarque, P. *Concise Encyclopedia of Philosophy of Language*, 1997, pp.185-186.

본 연구의 전개순서와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이원모델, 삼원 모델, 구조기호학 모델에서 주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 다음으로 기호체계에서 주체-객체가 설정되어 있는 위상학적 구도를 국면별로 설정한 후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의 이론과 개념들을 이들 구도에 위치시켜봄으로써 설정된 네 가지 구도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기호학적 주체 개념을 퍼스 기호학과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생성기호학 원리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II. 본론

1. 주체 문제와 위상기호학

칸트는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하여 근본적 수정을 가하면서 주관과 객관의 관계는 서로 독립된 두 극의 병존이 아니라 물음과 대답의 담론적 관계라고 했다. 그의 선험론에 의하면 객체의 형식이나 그것의 개념적 성격 등은 전적으로 인식 주관에 귀속하는 반면, 그것과 관련된 대상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대상으로 남은 상태에서 인간의 각종 물음을 기다리는 상태를 유지한다. 칸트는 이에 대해서 말하길 ‘우리가 사물에 붙어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집어넣은 것뿐이다’라고 했다.

현대철학의 인식론은 칸트의 선험론에 대한 비판들이다. 그것은 인식 주체를 대상(객체)과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한 가운데 양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종의 상호작용으로 인식작용을 설명하려고 할 경우 인식의 객관성을 둘러싸고 심각한 딜레마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즉 인식주체와 독립되어 있다고 상정된 그런 대상에 관해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주체에게 전달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면서도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질문한다.

기호학은 이러한 인식론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에게 과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그 과학적 기초라는 것은 기호 매개체를 통하여 작동하는 기호작용이 제시하는 정신세계와 외부세계 간 연결방식에 관한 위상 기호학적 사고의 틀을 가리키는 것이다.⁶⁾ 구체적으로는 랑그-파롤, 공식성-통시성 등 차이에 대한 형식론적, 위상학적 분절과 통합의 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위상기호학적 원리는 주관성, 검증불가해성이라는 철학적 사고의 본질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재고찰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를 제공한다.⁷⁾

주체의 문제에 대하여 기호학이 관련된 양상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기호학 내부에서 진행된 논의이다. 김성도는 이에 대해 논의하길, 구조기호학 내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상존해 왔는데, 그것은 구조기호학의 내재성 안의 ‘관계’를 중시하는 파리 기호학과, 그리고 발화작용, ‘현실’의 문제, 지시체 문제 등을 중시하는 역동적 구조주의로 구분하였다.⁸⁾ 벤베니스트의 담화 언어학과 발화작용 이론, 코케의 ‘현실원칙’, 그리고 화용론, 텍스트 언어학, 인지 언어학 등의 분야가 후자에 속한다. 역동적 구조주의는 랑그기호학이 정태적이고 획일적인 ‘체계’에 매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시간과 공간 개념의 역동성, 고정된 형식에 대립되는 생성과정 중에 있는 형식을 주장한다.

주체의 문제에 대하여 기호학이 관련된 두 번째 양상은 기호학이 주체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현대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 사상 간 논쟁의 영향권 하에서 제기된 문제를 들 수 있다. 기호학의 ‘체계’는 구조주의의

6) 위상기호학은 기호학이 차이에 대한 위상학적 사유에 관한 학문임을 강조하는 명칭이다. 여기서 위상학적 원리는 이원론적 원리와 구분된다. 후자가 차이에 의한 동일성(identity)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전자는 상대적 차이에 의한 맥락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위상학적 원리는 관계 속에서 대립요소들을 통합하는 원리이다.

7) 에코는 일반기호학이 철학성과 과학성을 함께 가진다고 보며, 점차 과학적 특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Eco, U, 「기호학과 언어철학」, 김성도 옮김, 열린책, 2009, 23~33쪽.

8) 김성도, 『기호, 리듬, 우주』, 인간사랑, 2007. 47~55쪽.

‘담론’과 후기구조주의의 ‘사건’과 비교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먼저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기호학적 주체는 시간 안에서 영속할 수 있는 고정된 동일성을 결여하고 구조 내에서의 위상학적 위치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찾게 되는 주체이다. 다시 말해서 주체는 언어의 구조적 요소들과 같이 그 자체로는 텅 비어있고 단지 관계만이 주체에 의미를 부여한다. 리코르(Paul Ricoeur)가 말한 ‘기호학적 질서는 주체 없는 체계의 차원’이라고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⁹⁾ 이러한 기호학의 주체는 ‘관계’가 ‘담론’으로 바뀌면서 현실에서의 주체가 개입되게 되었다. 담론언어학은 논의 대상을 기호 개념에서 문장과 담론 전체로까지 확대한다. 벤베니스트는 랑그기호학이 인간의 언어현실을 지나치게 추상화해 버렸다고 비판하면서, ‘이야기’와 ‘담론’을 구분한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사건들은 저절로 이야기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에 비해서 ‘담론’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발화행위’를 가정한다고 했으며,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지닌다고 했다.¹⁰⁾

한편 후기구조주의에서는 구조를 결정하는 관계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고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과 맥락에 의해서 변화한다는 탈중심적, 유동적 구조를 주장한다. 구조주의가 공간성, 법칙성, 이성을 바탕으로 한다면 후기구조주의는 공간을 바탕으로 시간을, 법칙성을 전제로 우연성을, 기호중심에서 신체나 물질중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러한 차이는 구조주의가 기호 이외의 주체와 외부세계를 소홀히 하였다고 비판을 낳는다. 즉 구조주의가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 간 관계, 차이, 조합을 통하여 의미가 형성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기호만이 의미를 결정한다는 범언어주의, 기호만능주의에 빠져 이런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고

9) Ricoeur, P., *Le Conflit des interpretation*, Seuil, 1969, 『구조주의와 그 이후』, 김종우 옮김, 42쪽.

10) Benveniste, E., *Problemes de linguistique generale*, 『일반언어학의 제문제1』, 민음사, 1992, 345쪽, 『구조주의와 그 이후』, 55쪽. 재재인용.

비판한다.¹¹⁾ 후기구조주의의 구조주의의 주체성에 대한 비판은 바로 이 위상학적 주체가 진정한 주체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비판에 해당한다.¹²⁾

기호학은 내부 논의에게는 물론이고, 두 번째 양상인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에게 주체 문제에 대한 사유의 토양을 제공한 학문이다. 구조주의의 담론에서 찾고자 하는 현실적 주체는 여전히 기호학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한 후기구조주의의 생성적, 사건적 주체 역시 기호학의 관계 체계를 근간으로 한다.¹³⁾ 이것은 곧 주체 문제에 대한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의 비판 자체가 바로 기호학에서 배태된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기호학이 제공한 그 사유의 토양은 무엇인가.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의 ‘구조’로 발전한 주체-객체, 인간-기호, 인간자아-외부세계 간 상관관계와 상호작용에 관한 사유의 틀의 근간은 무엇인가. 그 근간의 핵심에 위상기호학이 있다. 위상기호학은 기호학의 타 원리의 근간이듯이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의 주체 문제의 근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조’의 근간인 위상기호학으로 되돌아와서 그 위상기호학적 사유의 틀을 비판을 수용하는 관점에서 재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이원론, 삼원론, 서사기호학에서의 주체에 대한 고찰

‘주체=인간’, ‘객체=외부세계’라는 등식이 일반적으로 성립하고, 기호학이 이것을 형식화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기호의 정의에서부터 이것을 다시 검토해보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먼저 고대인들과 언어기호학에서는 기호를 ‘다른 것을 대신하는 그 무엇’이라고 보았고, 퍼스는 ‘어떤

11) 이동성, 「후기구조주의에서의 의미의 문제, 들뢰즈의 사건을 중심으로」, 『동서언론』 10, 동서언론학회, 263~264쪽,

12) Sarup, Madan,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전영백 옮김, 조형교육, 2005, 630쪽.

13) 예로서 앞서 언급된 실버만의 연구에서 뱅베니스트가 주체 문제를 소쉬르의 관계 체계에서 고찰한 것, 또 들뢰즈의 사건의 구조가 소쉬르의 계열체와 유사한 것을 들 수 있다.

관계나 명목 하에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¹⁴⁾ 이 정의에서 주체는 '대신하는 그 무엇'이고, 객체는 각각 '다른 것', '누군가'와 '무언가'로 설정되어 있다. 즉 '주체=기호'이고 인간 주체가 부재하다. 기호 주체가 인간 주체를 대신한다. 이것은 위 정의들이 기호의 관점에서의 것이지 인간의 관점에서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요 기호모델들에서 주체와 객체의 문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주체와 객체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방식은 모델별로 상이하다. 먼저 앞에서 언급한 소쉬르의 관계체계 이론으로부터 발전되어 온 외시-내포기호학은 외부세계에서 일어나는 의미체계를 관계적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그런데 외시-내포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그 근간인 이원모델의 형식-내용, 외연-내포 간 관계체계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기호 내의 관계체계에 해당하고,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 주체는 보이지 않는다.¹⁵⁾ 이것은 인간 주체가 부재하기 때문이 아니고 기호와 인간 주체 간 위치적 관계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기호가 인간 주체의 의식 내부에 위치할 수도 있고 외부세계에 위치하여 분리될 수도 있는 묵시적 관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묵시적 관계가 상황별로 어떤 구도를 가지는가를 밝히는 것이 외시-내포 기호학에서의 주체 문제를 밝히는 연구의 요체일 것이다.

그레마스의 서사기호학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레마스 서사기호학은 스토리의 서술구조와 전개를 기술하기 위한 것으로 주체와 객체가 스토리 전개에 필요한 언어학적 구조를 따른다. 이것은 행동자 모델에 나타나는데, 주어는 행동하는 자, 목적어는 행동 대상이라고 설정하고 이들을 설화 문법의 테두리에서 각각 주체와 대상에 해당된다.¹⁶⁾ 이

14) Eco, U, 「기호: 개념과 역사」, 김광현 옮김, 열린책, 2000, 43쪽.

15) 벤베니스트는 지시자로서의 발화 주체와 지시대상으로서의 담화 주체를 구분하면서 양자는 함쳐질 수 없다고 했다(Silverman, K., p46), 본 연구에서의 주체는 전자에 해당하는 인식 주체이다.

16) 박인철, 『파리학과파의 기호학』, 2006, 155쪽.

행동자 모델 외에도 의미생성행로의 각 층위에서 주체와 객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서사구조와 전개상의 주체는 텍스트 생성자로서의 작가 또는 의미생성자로서의 독자 주체와 구별되어야 한다. 즉 서사기호학의 의미생성행로의 층위들에 나타난 주체들 외에 작가 또는 독자로서의 주체가 이면에 묵시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또한 그의 기호학은 구조기호학의 전범으로서도 역시 형식적 언어의 속성들에 천착했다. 언어는 표상들의 체계로서 ‘사고 앞에 놓여진 대상’으로서 파악되며, 분석가는 초월적 주체로 변형된다.¹⁷⁾

퍼스의 범주론과 삼원론은 인간의 보편적 존재론에 기반한 인식의 원리에 관한 것이다. 그는 삼원론에서 인간의 인식작용을 범주론의 범주 간 상관성을 토대로 한 기호작용으로 형식화하였다. 퍼스의 삼원론에서는 ‘객체=대상’으로 나타나고, 인간 주체는 이원론에서과 마찬가지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우주에 실재하는 기호작용 내의 한 존재라고 했다.¹⁸⁾ 또 우주의 모든 것들은 기호작용에 의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에서 주체 또는 인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또한 그의 모델에서 주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관련하여 찾아볼 수 있는 퍼스의 진술은 다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삼원 모델을 구성하는 세 요소(표상체, 대상체, 해석체) 모두가 무한한 기호작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진술이다. 이 진술은 기호작용 내에서 이 세 요소들의 기호작용 주체로서의 상호유기적 관계에 대한 것이다. 즉 세 요소들은 각각 독립적 위상과 관계를 가지면서 기호작용에 참여하지만, 관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원 요소로 더 분해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하에 놓여 있는 구도를 말한다. 이 때 인간 자신이 대상으로

17) 김성도, 『기호, 리듬, 우주』, 인간사랑, 2007. 48쪽.

18) 퍼스는 인간도 기호라고 하면서 대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해 언급했으나 기호작용 주체로서의 인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인다.

인식된다면 기호는 인간을 표상한다. 즉 퍼스에게 기호작용의 주체는 인간 또는 기호이다.

두 번째는 ‘인식이 현실세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탐구하는 것에서 인식의 주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진술과 ‘인간은 이미 접수되어 있는 인식의 소재(기호)를 기초로 해서 현재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구성한다.’는 진술이다.¹⁹⁾ 이 진술들은 기호 주체의 역할을 기호활동으로 나타난 현실적 효과 측면에서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기호 주체는 기호작용 내에서 의미작용과 의사소통 작용을 수행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이지 인식의 주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주체 문제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이원모델은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언어학적 모델로서 주체의 시점과 시선이 인간의식의 내부와 외부세계를 넘나든다.²⁰⁾ 기표와 기의가 텅 비어있고 인식론적 관계를 통하여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구도로서 그 채움의 주체는 인간과 사회가 된다. 반면 삼원모델은 모델요소들(표상체, 대상체, 해석체)이 각자 범주론에서 구분된 존재론적 위상과 관계를 견지하면서 기호작용에 주체로 참여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논리적 모델로서, 인간을 포함한 외부세계 전체가 기호작용에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대한 모델이다. 이렇게 이원모델과 삼원모델은 인식의 구도에서 차이가 있다.

위의 고찰을 토대로 본다면 주체 문제는 기호체계 내에서의 인간과 기호의 위치와 존재양식의 위상학적 상관성 관점에서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기호작용 내에서 주체와 객체로서의 인간, 기호, 외부세계가 각각 어떤 양식으로 위치하고, 또 기호의 매개를 통하여 상호 어떤 위상학적 관계 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도’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부언한다. 이 개념은

19) Valis Deux, *E De Wakru Gendau Shiso*, 「그림으로 이해하는 현대사상」, 남도현 옮김, 개마고원, 2003, 133~136쪽.

20) Liszka, J, 「퍼스 기호학의 이해」, 이윤희 옮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63쪽.

미술에서 통용되는 구도의 의미를 응용적으로 원용한 것이다. 미술에서는 작가가 공간 또는 화면 형성을 위해 소재, 형태, 색채 등 모든 화면 요소를 배치하고 명암, 조화, 원근법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통일체로 완성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구도는 인간, 사물, 현상으로 구성된 세계를 주체, 기호, 객체로 구성된 것으로 인식할 때 그들 간 위상학적 관계의 틀을 의미한다. 이 위상학적 관계, 즉 구도의 설정에 따라 주체, 기호, 객체가 상호작용하는 양태가 달라진다. 또 동일 기호작용 내에서의 구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²¹⁾ 주체의 문제는 이러한 구도의 다양성, 변동성의 관점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3. 주체 문제 고찰을 위한 위상기호학적 인식구도 설정

인간과 기호의 존재양식에 따른 위상학적 관계체계의 구도는 다음 세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설정될 수 있다.²²⁾ 첫째로 기호의 위치(인간 내부 또는 외부세계), 둘째로 기호에 대한 인간 주체의 역할(기호 생성자, 해석자로서의 역할의 방식), 셋째로 인간 주체가 기호를 통해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인간자아 방향, 외부세계 방향)을 말한다. 이들 요소들은 각각 기호, 인간 주체,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위상학적 구도는 이들 요소들 간 관계체계를 말한다. 여기서 기호가 생성, 해석되는 것이 기호의 위치와 관련되기 때문에 첫째 요소와 둘째 요소는 일부 중복이 발생한다. 또 세 번째 요인 중 인간자아 방향은 국면 구성요소에서 제외되는 경우

21) 구도의 시간적 변동성은 영화에서 카메라에 의한 프레임 구도의 변화와 유사하다. 구도의 변동성은 기호의 위치와 시선의 변동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카메라 시점과 시선의 변화와 유사하다.

22) 주체성 논의를 위한 구도를 제시한 선행 연구사례로, 김광현은 이데올로기와 개인 및 집단의 주체성 형성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구도로 테르본의 견해에 따라 내포적-실존적, 내포적-역사적, 지위적-실존적, 지위적-역사적 이데올로기 등 네 개의 구도를 제시했다. 「이데올로기와 주체성 형성의 문제」, 『기호학연구』 19, 한국기호학회, 2006, 173~191쪽.

가 일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산술적으로는 $2 \times 2 \times 2 = 8$ 가지의 구도의 경우가 실제로는 다음 네 가지로 축소된다.²³⁾

첫 번째 구도는 기호가 인간의 내부에 위치하고 그 인간은 자신의 의식 또는 무의식 세계에서 생성된 내부기호를 통하여 자아를 해석하는 국면에서의 구도이다. 반면 두 번째 구도는 인간 주체가 그 내부기호를 통해 외부세계를 바라보는 국면으로서 인간은 자신이 생성한 내부기호를 통하여 외부세계를 해석하는 구도이다. 전자의 구도에서는 의식 또는 무의식에서 생성된 내부기호를 통하여 자아를 해석하는 양상으로서, 자아는 인간 주체에 의한 끊임없는 해석대상이 된다. 해석된 기호는 또 다른 생성기호로 작용하여 자신의 기호작용으로 회귀하거나 외부세계에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구도에서의 주체는 각각 자아응시적 주체, 내부기호투사적 주체로 명명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기호가 외부세계에 위치하여 외부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고 인간은 그러한 외부기호를 통해 자아 또는 외부세계를 해석하는 국면이 있다. 주어진 외부기호는 자신이 생성한 기호와 대등한 위치의 기호로 변환되어 앞의 두 번째 국면으로 전환된다. 이것은 외부기호에 대한 능동적 변용, 즉 외부기호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주체적 기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구도는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적 개념이나 이론을 개인이 습득하여 내면화하는 경우이다. 이것이 세 번째 구도로 설정하는 것으로 이 구도에서의 주체는 외부기호 반사적 주체로 명명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구도는 주체-객체가 명확히 구분된 구도 하에 기호가 매개체 역할을 하고 인간 주체가 중심이 되는 방식이었다. 인간 주체는 자

23)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의 구도는 본 연구의 목적에 국한한 포괄적 수준의 구분이고, 실제로는 각 사상들이 여러 구도에 걸친 복합구도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또 필요 시 추가 세분화가 가능함을 전제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주체는 인간 주체이며, 국면에 따라 기호가 주체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주체 문제와 관련 깊은 자아와 무의식 세계에 대한 논의는 제외되어 있다.

신의 외부세계에 대한 이해방식과 판단적 사고 하에 생성자와 해석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이에 비해 네 번째 구도는 인간 주체의 중심적 역할을 인간과 기호의 상호작용으로 대체하는 탈중심적 방식의 기호작용의 경우이다. 이 구도에서는 인간은 외부세계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판단적 사고를 유보하고 기호가 생산하는 유동적 표상성을 통해 외부세계의 가시적, 비가시적 실재와 의미를 사유하는 방식으로 외부세계에 접근한다. 기호는 외부세계에 위치하면서 의미해석의 매개체임과 동시에 자신에 내재된 자기생성적, 맥락적 유동성에 의해 끊임없이 변형, 생성하는 주체적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그 결과 시공간적 불확정성에 의해 우연적으로 생성되는 기호는 인간 주체에게 가치판단의 우보를 요구하기도 하고 메타기호의 생성을 위해 또다른 사건의 유희적 생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즉 기호생성과 해석이 인간에 의해 작동할 수도 있고 기호 자체에 의해서도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구도에서는 인간 주체와 기호가 시점과 시점방향이 서로 교차하거나 위치바꿈하면서 기호생성자와 해석자로서 작용한다. 인간 주체는 현실계와 기호계의 중간에 위치한다. 이 구도에서의 주체는 비결정표상적 주체로 명명할 수 있다.

4. 위상기호학적 관점에서 본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

앞 장에서 주체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설정된 위상기호학의 네 가지 구도는 주체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기호학의 위상학적 원점에서 재고찰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이었다. 본 장에서는 그 구도들을 실제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에 속하는 이론들과 개념들에 적용하여 각각의 기호학적 주체의 위상을 확인해본다.

1) 라캉의 자아 이론 : 자아응시적 주체

라캉(Jacques Lacan)은 ‘나’의 최초의 형성은 거울단계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라캉은 거울단계 이론과 거세 콤플렉스 해소 과정을 통하여 아이가

자아를 형성하고, 또 인간 주체의 이름, 가족적 정체성을 부여받으며, 자아와 주체성의 고유한 기표를 부여함으로써 주체를 해방시키게 된다고 했다. 라캉은 인간은 자신의 자아에 다가가는 ‘반영의 무한성’에서 기표로서의 반영물이 무엇인지(거울단계에서 어머니의 얼굴 등)를 찾으려고 하지만 기표의 미끄러짐과 인식의 변증법에 의해서 안정된 자아의 이미지를 얻지 못한다고 했다. 라캉은 이러한 인간 주체의 불안정한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길, 주체란 표상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표상도 우리를 완전히 포착할 수 없다고, 또 나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존재라고 했다. 라캉의 이론에서는 자신의 내부에서 생성된 기호를 통하여 자아를 해석하는 구도이며, 이 경우 인간 주체는 자아응시적 주체가 된다.²⁴⁾

2) 크리스테바의 주체철학 : 내부기호투사적 주체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거울단계 이론과 거세 콤플렉스 이론을 자신의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여러 면에서 라캉과 차별화가 나타난다. 우선 라캉과 달리 의미작과 주체성의 역사적, 사회적 측면을 항상 근본적인 것으로 의식한다. 그녀가 제시한 개념적 도구에서도 주체의 생성적 역할과 사회적 측면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먼저 라캉의 이론을 수정하여 제시한 기호계와 상징계 이론에서, 기호계는 주체의 언어적 실천과정에 개입하여 상징계와 변증법적, 상호텍스트적 관계 하에 놓이고, 이곳에서 주체는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 위협을 받기도 한다. 또 다른 개념적 도구인 아브젝시옹(Abejction) 이론에서 주체는 자신의 아브젝트(Abejct, 안정된 정체성 확보를 위해 버려진 위협적, 이질적인 것)를 배제, 추방함으로써 특권적 위치를 구현하고, 사회 역시 경계를 정하여 반사회적 요소들을 배제, 억압함으로써 질서를 확립한다. 아브젝트는 상징계로부터 완벽히 제거되지 않고 있으면서 주체의 정체성과 사회적 질서를 위협하지만, 주체의 쇄신과 현실 변혁을 위해 수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정치적

24) Sarup, Madan, 앞의 책, 21~31쪽.

반항의 의미와 효과가 있다고 한다. 크리스테바의 주체는 자아와 아브젝트로 구성된 내부기호를 사회에 투사하면서 변화의 주체가 되는 내부기호투사적 주체이다.²⁵⁾

3)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주체이론 : 외부기호반사적 주체

구조주의 논쟁에서 주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주어지는 것으로서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데올로기가 주체로 역할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다.²⁶⁾ 알튀세르(Louis Althusser)는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에서 나타난 상부구조, 허위의식으로서 일련의 정적 사상이나 가치 체계로서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의미와 사상을 산출하는 전반적인 과정으로서의 역동적인 실천의 문제로 환원한다. 곧 이데올로기는 현실을 보는 하나의 창문이고 벗을 수 없는 색안경으로, 인간은 이데올로기를 통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배우고 느끼고 헤쳐나간다는 것이다.²⁷⁾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요된 의식구조 내에서의 주체성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각 개인이 이데올로기 안에서 이데올로기의 ‘호명(interpellation)’을 받아 자신을 주체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이데올로기는 라캉의 거울단계이론에 나오는 거울이고, 우리 인간은 이데올로기라는 거울에 나타난 상을 통해 주체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개인을 주체로 호명한다.’는 그의 말이 그것이다.²⁸⁾ 이때 이데올로기로부터 제공되는 것은 협소한 정치적 이념의 덩어리가 아니라, 현실과 자아의 변수들을 규정짓는 가설의 틀이다. 이 가설의 틀은 이데올로기가 과정 또는 실천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이며, 각 개인은 이 가설

25) McAfee, Noelle,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부순 옮김, 엘피, 2007, 7~11쪽.

26) 홍광엽은 이데올로기적 사회문제들의 심층분석에서 사회적 기호에 내재된 차이의 개념과 상대적 자율성 개념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홍광엽, 「이데올로기 분석에 있어서 현대 기호학의 기여」, 『한국정치학회보』 22, 한국정치학회, 189쪽.

27) 네이버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커뮤니케이션북스, 문화연구의 핵심개념: 이데올로기.

28) Ferretter, P.,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심세광 옮김, 엘피, 2014, 167쪽.

의 틀에 자신만의 현실과 자아의 상수 값을 대입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동일한 이데올로기 내에서 동일한 상황에 대한 개인별 반응이 동일화(동의, 순종), 반동일화(저항), 비동일화(편승하는 동시에 저항하는)의 길을 선택한다.²⁹⁾ 알튀세르의 이론에서 이데올로기의 호명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기호이고 인간은 그것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외부기호반사적 주체가 된다.

4) 들뢰즈의 사건의 존재론 : 비결정표상적 주체

들뢰즈(Gilles Deleuze)의 철학은 생성, 운동, 변화를 사건으로 사유하는 사건의 존재론이다. ‘A become B’에서 (대상으로서의) A, B를 사유하는 것이 아니고 become을 사유하는 것으로 변화, 운동, 생성의 의미와 관련 되는 지점을 사유하는 것이다.³⁰⁾ 사건은 ‘순간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인 ‘시물라크르’라고 불리는 것으로, 자기 동일성이 없고, 지속성도 없고, 실체도 불완전하여 전통 존재론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 현대철학에서 부활한 것이다. 사건의 존재론에서는 사건에 구조를 부여하고, 구조주의 틀에서 의미를 파악한다. 즉 하나의 사건은 그 자체로는 무의미하지만, 하나의 계열에 편입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수많은 계열들은 구조를 형성하며, 이 구조는 서로 겹쳐 있는 여러 계열들의 열린 역동적 구조이다. 이로써 공간<시간, 필연<우연, 존재<생성 쪽으로 사건의 구조가 역동화된다.³¹⁾ 사건의 존재론에서는 주체가 관점을 결정

29) 알튀세르에게 이데올로기는 허위의식도, 의식도 아닌 무의식이어서 언제나/이미 있는 것, 기원도 역사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누구나 당연시하고 넘어가는 무의식과 같은 것이며, 모든 행위와 사고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다. 같은 책, 170쪽,

30) 정원옥 외, 모나드론 관점에서 본 현대건축공간에 나타나는 필침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12, 71쪽.

31) 사건의 존재론에서는 기호의 차원이 의미를 다 설명할 수 없어 언어 바깥의 그 무엇을 가져와야 한다. 이를 위해 의미를 공간적으로 고정된 존재의 기표 중심으로 보지 않고 실제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자체인 물질, 생명체, 신체 등에서 드러나는 움직임, 생성, 변화를 의미와 더불어 사유한다. 이동성, 「후기구조주의에서의 의미의 문제, 들뢰즈의 사건을 중심으로」, 『동서언론』, 동서언론학회, 10, 2006, 263~289쪽.

하는 것이 아닌 관점이 주체를 형성한다. 객관적 선험이 먼저 존재하는 것이고, 그 특이성들 중 일정 부분이 하나의 개체를 형성하며, 그 특이성들이 특정한 관점을 형성함으로써 그것이 주체가 된다. 그 주체는 구조를 결정하게 되고, 그 구조에 의해 나타나는 것은 진리의 일부분이다. 주체에 따라 진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하는 진리가 주체에 나타나는 것이다.³²⁾

사건의 존재론에서의 주체는 이러한 유동적 관점에 의해서 생성되는 기호 주체이다. 주름건축, 무한확장 공간, 일시적 공간 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³³⁾ 이러한 무한한 생성 과정상의 국면의 연속에서의 주체는 인간 주체와 기호 주체 간 상호교환에 의해 형성되는 비결정표상적 주체이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체-기호-객체에 관한 네 가지 구도를 설정하고 이것이 최근 기호학,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의 이론과 개념들의 위상과 그들 주체들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를 넓혀 기호학이 최근 주요 관심사인 퍼스 기호학을 생성과 진화의 원리의 토대로서의 활용하는 목적을 위하여 주체 문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퍼스 철학에서는 그의 연속주의와 범기호학주의에 따라 외부세계의 사물이 기호가 될 수도 있고 인간 자신이 기호가 될 수도 있다. 그의 삼원론에서는 세 모델 요소 각자가 모두 기호작용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세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한 개의 기호 통합체를 형성한다. 퍼스는 또한 기호들이 자기변형적인 자연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한다. 이 자기변

32) 앞의 글, 71쪽.

33) 같은 글. 68~76쪽, 최지운 외, 「후기구조주의 사유체계에 의한 디지털 건축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 페이지 미상.

형적인 자연의 편재성은 그의 기호학과 형이상학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고 또한 모든 기호학적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한 무한한 창조적 근원이다. 이러한 범기호학주의와 자기변형성은 범주론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그의 삼원론에서 기호논리 속에 해석이론에 그치지 않고 생성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태되어 있다. 퍼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물의 있음에는 추론의 과정에 해당하는 그 무엇이 있다. 세계는 사건들의 논리 속에서 살며, 움직이며, 그 존재를 갖는다.’라고 했다.³⁴⁾ 이러한 그의 진술은 들뢰즈의 사건의 존재론과 상통하는 것으로 우연성과 법칙성에서 발생하는 생성, 진화의 원리를 품고 있다. 이러한 우주론적, 진화론적 원리들의 틀 속에서 인간과 외부세계를 바라본다면 인간 주체와 기호 주체의 상호작용의 대상으로서 외부세계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이것은 우주의 중심이 아닌 기호작용 속의 한 주체로서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체 문제를 고찰하는 한 방법으로서 인식체계를 구성하는 세 요소인 인간, 기호, 객체로 이루어지는 위상기하학적 구도를 네 가지로 제시하고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 사상들이 품고 있는 주체적 위상을 기호학적 관점에서 찾아보았다. 연구 결과 이들 현대 사상들이 연구주제로 삼고 있는 인간 자아와 사회에 대한 해석과 생성에서의 주체적 역할과 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작업에 기호학의 원리가 유용한 토양을 제공해왔다는 것이 나타났다. 나아가서 이것은 기호학이 향후 지향하고자 하는 한 방향인 건축기호학, 도시기호학, 디자인기호학 등 생성기호학의 지평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4) 김성도, 『기호, 리듬, 우주』, 인간사랑, 2007. 87~93쪽. (퍼스의 진술의 MS(퍼스의 수고목록) 439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함).

참고문헌

- 김광현, 「이데올로기와 주체성 형성의 문제」, 『기호학연구』 19, 한국기호학회, 2006, 173~191쪽.
- 김성도, 『기호, 리듬, 우주』, 인간사랑, 2007. 47~55쪽.
- 박인철, 「파리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6.
- 이동성, 「후기구조주의에서의 의미의 문제, 들뢰즈의 사건을 중심으로」, 『동서언론』, 동서언론학회, 10, 2006, 263~289쪽.
- 정원옥·김개천, 「모나드론 관점에서 본 현대건축공간에 나타나는 펼침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1, 2012, 68~76쪽.
- 최지운·박길룡·김용성, 「후기구조주의 사유체계에 의한 디지털 건축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 페이지 미상.
- 홍광엽, 「이데올로기 분석에 있어서 현대 기호학의 기여」,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22 (1988), 187~208쪽.
- 황영삼, 「건축의 복합성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동향」, 『대한건축학회지』 56, 대한건축학회, 2012, 61~67쪽.
- , 「에코, 스칼비니, 쟁크스의 비교를 통한 건축기호모델 연구」, 『기호학연구』 38, 한국기호학회, 2014, 301~329쪽.
- Benveniste, E. 「일반언어학의 제문제1」, 황경자 옮김, 민음사, 1992.
- Deux, Valis, E De Waku Gendau Shiso, 「그림으로 이해하는 현대사상」, 남도현 옮김 개마고원, 2003.
- Eco, U, 「기호학과 언어 철학」, 김성도 옮김, 열린책, 1997.
- Liszka, J, 「퍼스 기호학의 이해」, 이윤희 옮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2013.
- Ferretter, P.,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심세광 옮김, 엘피, 2014.
- McAfee, Noelle,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부순 옮김, 엘피, 2007.
- Sarup, Madan,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전영백 옮김, 조형교육, 2005, 630쪽.
- Silverman, Kaja., The Subject of Semiotics, Oxford Univ Press, 1983, pp.14-53.
-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커뮤니케이션북스, 문화연구의 핵심개념, 2014.

Study of Semiotic Subject

Hwang, Young-Sam

In semiotic world, with a medium of sign, subject and object, constitute a semiotic system, where subject corresponds to humans, object to external world. Sign plays the role of medium by which humans as semiotic subject understand, create and manipulate the external world. Looking into the semiotic history, the dyadic model by Saussure and triadic models by Peirce have been reconsidered by leading semioticians like Barthes, Benvenistem, in terms of subjectivity. The same issue of subjectivity has also been dealt with in other academic and ideological areas, structuralism and poststructuralism. Criticizing semiotics for lack of subjectivity in semiotic relativism, they substituted it with their discourse and event respectively. However considering the position of semiotics as foundation of these two ideological trends, it is worthy that semiotics is reviewed in terms of determinants of semiotic subjectivity.

This research works on the considerations of relative configuration by three constituents: human, sign, and external world. Postulating three viewpoints as determining subjectivity in semiotic system. Combining them, four different configurations have been proposed, for each of which ego-gazing, internal sign projecting, external sign reflective, and nondeterministic subjects correspond. Four structuralistic and poststructuralistic theories have been selected to seek their position in the configurative subjects. It is discussed this research puts forward the perspectives for creative semiotics.

Key Words: Semiotics, Subject and Object, Subject of Semiotics, Topological Semiotics, Architectural Semiotics, Urban Semiotics

투고일 : 2015. 04. 30. / 심사일 : 2015. 05. 10. / 심사완료일 : 2015. 05. 25.